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

Influence of Resilience 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 Young Single Mother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rejudice

김영미*, 이화명**
부산여자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Yeoung-Mi Kim(okok25366@hanmail.net)*, Hwa-Myung Lee(seahwamyung@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적응유연성 중 낙관성이 사회적 편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응유연성 중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편견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양육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접근의 중요성을 촉구하였다.

■ 중심어 : | 양육 청소년 미혼모 | 적응유연성 | 사회적 편견 | 긍정적 양육행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resilience of young single mothers 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rejud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ptimism among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ffected social prejudice in a negative way. Second,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and positive evaluation about self among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ffecte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 a positive way. Third, Social prejudice was found to have affecte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 a negative way. Fourth, social prejudice was found to have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explored how to bolster the resilience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f young single mothers and urged counseling intervention and social-welfare approach to dispel social prejudice.

■ keyword : | Young Single Mother | Resilience | Social Prejudice |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서,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성에 대한 행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연령이 낮아지고, 행동의 자유가 커짐에 따라 성에 대한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1], 사회적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소년 미혼모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를 미성년자이면서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여성으로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비윤리적이며, 성일탈자, 그리고 사회적 일탈자로 보고 있다[2]. 이러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저 연령화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7)[3]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미혼부모는 총 33,108명이었으며, 그 중 20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는 435명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미혼부는 28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 4,121명 중 미혼부모가 850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20.6%를 차지하였다[4].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으로 인해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죄악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임신에 따른 책임 역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높다[5-7].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홀로 자녀를 키우려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양육 청소년 미혼모는 성인 미혼모보다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양육 청소년 미혼모 경우에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에서 명시된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 균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들은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어린 나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가

중된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8].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2011)[9]은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을 감당해야 함으로 일반 가정 부모보다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미영(2011)[10]도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이에 맞는 경제적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며, 양부모와 달리 경제문제, 자녀 양육문제, 가사, 양쪽 부모역할 등 그 모든 책임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므로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 자녀문제를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점, 양친 동거 가족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 이성애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가치관, 교사의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망이 좁아지고, 대인관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1].

이러한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등은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1][12]. 선행연구[11][12]에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과도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라고 밝혔다. 즉, 어머니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편견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양육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자녀에게 기능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긍정적인 어머니 역할에 몰입하는 미혼모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적응유연성을 들 수 있다. 적응유연성은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거나[13],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14].

Garmezy(1993)[15]는 고위험 상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유연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어낸다고 보고하였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은 그들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인생발달에서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단계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적응 및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적응유연성이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편견과 스트레스,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해내는 능력인 적응유연성은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 미혼모들에 대한 연구들 [6][16-18]은 양육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차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정책적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미혼모의 적응유연성과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양육청소년 미혼모들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적응유연성은 사회적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고찰

1.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서

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효능감(efficacy) 또는 능력(ability)으로 설명될 수 있다 [13][15][19-21]. 이러한 능력은 위협상황이나 심각한 역경 등의 충격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게 한다. 그러므로 적응유연한 사람은 삶의 주요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게 된다[22].

Garnezy(1993)[15]는 적응유연성은 보호요인으로 개인이 위협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Garnezy는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축소하기보다는 보호요인을 강화시킴으로써 위협요인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15]. 그리고 Masten(2001)[13]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 적응하고, 위협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발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적응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적응유연성에 대한 정의에는 두 가지 조건이 강조되고 있는데, 첫째, 중대한 위협이나 심각한 불운에 노출되는 것을 전제하고 둘째, 발달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위협을 당하더라도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발달적 과업과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적응을 획득해야한다는 점이다[23].

적응유연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보면, 이해리와 조한익(2005)[24]의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개인내적 적응유연성과 대인차원 적응유연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즉, 개인내적 적응유연성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성적 차원으로 세분화 되고, 인지적 차원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요인, 정서적 차원은 감정 및 충동조절요인과 공감 및 수용요인, 의지적 차원은 낙관주의요인 및 목표요인, 영성적 차원은 의미추구요인과 종교적 영성요인이 포함된다. 대인차원 적응유연성은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별로 돌봄 반응과 적극적 상호작용 하위요인이 있다.

송희영 등(2006)[25]은 적응유연성을 4가지로 분류 즉, 미래, 환경,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지향적 기

대를 가지는 긍정적이고 확고한 인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 호혜적 인간관계, 민감한 위기의식, 통제감을 가지고 상황을 조정하는 융통성 있는 대응전략의 사용,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욕구를 지연시키며, 자신의 감정을 안정감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서 유지 등이다.

신우열 등(2009)[26]은 적응유연성을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통제성에는 원인 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이 있고, 긍정성에는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있으며, 사회성에는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을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며, 슬플 때도 실망하지 않는 낙관적인 태도로서 노력하는 능력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요셉(2009)[27], 조규필(2005)[28], 그리고 최태은(2007)[29]의 연구를 바탕으로 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을 낙관성,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양육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는 스티그마(stigma)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명예스러운 낙인, 치욕, 오점, 오명, 그리스도의 성흔 등을 뜻한다. 그리스어 어원은 “송곳 따위로 뚫다, 구멍을 만들다, 찢린 구멍, 도장, 반점, 오점”의 의미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나쁜 사람에 대해 몸에 표시를 남기는 것 즉, 죄인, 노예, 반역자나 매국노를 표시하기 위해 불로 달군 인두로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이다[30].

미혼모는 사회적 규율에서 벗어나 혼전 성행위를 통해서 임신한 것으로, 사회적 일탈자라는 낙인 속에서 사회라는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31].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편견을 갖게 되는 개인들은 그 낙인이 갖는 속성의 측면에서 규정되어지므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전체의 자아정체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법률이 정한 결혼관계와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미혼모들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 있다[32]. 특히 10대 미혼모들은 20대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사별이나 이혼에 의한 여성 한부모 가족보다 대부분 연령이 어리며, 사회적 편견을 심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경험도 없고,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6].

김현진(2001)[33]의 연구에서 사회의 태도에 대한 미혼모의 의식을 보면, 냉담하고 죄인식한다는 응답이 75.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차별을 두지 않거나 따뜻하게 대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미혼모들은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고,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도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움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매우 강하다. 학력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적인식이 약화되는 면을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미혼모에 대해 거리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또한 그 정도에 있어서도 아주 심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적 대상인 성적 소수자와 유사한 수준의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34].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는 열악한 자녀양육과 자녀문제행동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편견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3.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문은식(2007)[35]은 양육행동을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

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과 아동에 대한 요구로 보았다. 또한 이진희(2011)[36]는 양육행동을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외현적, 내현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양육행동이란 양육 청소년 미혼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일관적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교육의 장으로,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및 정서적 유대는 인격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인성, 자녀에 대한 태도, 양육기술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37].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즉,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어려움, 홀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받는 양육스트레스 등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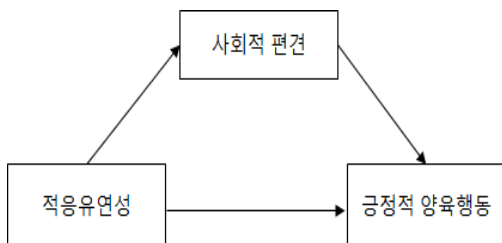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은 사회적 편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사회적 편견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소재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해 2018년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달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50부를 배부하여 135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131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3.1 적응유연성 척도

적응유연성 척도는 Jew 등(1999)[38]이 개발한 도구 'Resiliency Belief System'을 김정득(2002)[39], 이해리와 조한익(2005)[24]이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18개의 문항은 5점 평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가 0.90으로 나타났다.

3.2 긍정적 양육행동

긍정적 양육행동은 이선희(2012)[40]의 양육행동 척도를 나지혜(2012)[41]가 유아기에 맞추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19개의 문항은 5점 평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가 0.97로 나타났다.

3.3 사회적 편견

사회적 편견은 장현주(2009)[42]가 개발한 사회적 편견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19개의 문항은 5점 평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편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가 0.64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ierarchical Regression(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131명 중 연령별로는 16세와 17세, 18세가 각각 19.8%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중학교 중퇴가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님 상태별로는 두 분 모두 계시지만 이혼이나 별거 중에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만 계신다 23.7%, 한 분이 친 부모님이 아니다 1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연령	13세	11	8.4
	14세	9	6.9
	15세	8	6.1
	16세	26	19.8
	17세	26	19.8
	18세	26	19.8
	19세	25	19.1
학력	중학교 중퇴	74	56.5
	중학교 졸업	29	22.1
	고등학교 중퇴	16	12.2
	고등학교 졸업	12	9.2
부모님 상태	두 분 모두 살아계신다	2	1.5
	모두 계시지만 이혼이나 별거 중	58	44.3
	아버지만 계신다	31	23.7
	어머니만 계신다	12	9.2
	한 분이 친부모님이 아니다	24	18.3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4	3.1	
자녀의 부와 현재 상태	자주 연락하고 있다	3	2.3
	가끔 연락하고 있다	40	30.5
	헤어졌다	88	67.2
자녀의 연령	만 1세 미만	17	13.0
	만 1세	69	52.7
	만 2~3세	45	34.4
전 체		131	100.0

자녀의 아버지와 현재 상태별로는 헤어진 경우가 67.2%로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 32.8%보다 월등이 많았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만 1세가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만 2~3세 34.4%, 만 1세 미만 13.0%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수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적응유연성과 매개변수인 사회적 편견, 그리고 종속변수인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1.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1.000					
2.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0.872***	1.000				
3. 낙관성	0.321***	0.237**	1.000			
4. 적응유연성	0.912***	0.909***	0.590***	1.000		
5. 사회적 편견	-0.293**	-0.262**	-0.678***	-0.479***	1.000	
6. 긍정적 양육 행동	0.634***	0.697***	0.222*	0.636***	-0.352***	1.000
Mean (SD)	2.05 (0.91)	2.54 (0.93)	2.98 (0.99)	2.53 (0.77)	2.10 (0.27)	2.79 (1.08)

* p<.05, ** p<.01, *** p<.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응유연성은 사회적 편견($r=-.47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긍정적 양육행동($r=.636,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편견은 긍정적 양육행동($r=-.35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편견이 낮고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으며, 사회적 편견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낮음을 알 수 있다.

3.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편견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3.1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사회적 편견		
		b	β	t
적응유연성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0.013	0.045	0.330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0.043	-0.145	-1.094
	낙관성	-0.182	-0.659	-9.627***
constant		2.724		39.617***
R ²		0.472		
F		37.771***		

*** p<.001

이 회귀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37.771, p<.001$), 설명력은 47.2%($R^2=.0472$)이었다. 사회적 편견에는 적응유연성 중에 낙관성($\beta=-.65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낙관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은 사회적 편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긍정적 양육행동			
	b	β	t	
적응유연성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0.264	0.223	2.795**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0.817	0.707	9.070***
	낙관성	-0.019	-0.017	-0.424
constant		0.225		1.414
R ²		0.816		
F		188.191***		

** p<.01, *** p<.001

이 회귀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88.191, p<.001$), 설명력은 81.6%($R^2=.0816$)이었다.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적응유연성 중에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beta=.223, p<.01$)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beta=.70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사회적 편견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사회적 편견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편견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긍정적 양육행동		
	b	β	t
사회적 편견	-1.383	-0.352	-4.273***
constant	5.689		8.303***
R ²	0.124		
F	18.262***		

*** p<.001

이 회귀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8.262, p<.001), 설명력은 12.4%(R²=.0124)이었다.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사회적 편견(β =-.35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사회적 편견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델 I에서는 적응유연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사회적 편견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

구 분		모델 II		
		b	β	t
적응유연성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0.275	0.233	3.117**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0.781	0.676	9.232***
	낙관성	0.173	0.159	3.198**
사회적 편견		-0.844	-0.215	-4.393***
constant		2.523		4.639***
R ²		0.841		
Δ R ²		0.025		
F		166.302***		
Δ F		19.296***		

** p<.01, *** p<.001

첫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I([표 4])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회귀분석은 [표 7]의 모델 II는 사회적 편견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66.302, p<.001), 설명력은 84.1%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모형보다 설명력이 2.5% 증가하였다(Δ R²=.025).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적응유연성 중에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β =.233, p<.01)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β =.676, p<.001), 낙관성(β =.159,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편견(β =-.21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낙관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편견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양육 청소년 미혼모는 성인 미혼모보다 사회적 편견이 더 심하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중 낙관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응유연성은 환경적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43][44]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적응유연성은 보호요인으로 개인이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밝힌

Garnezy(1993)[15]의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편견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의 낮음이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 중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적응유연성을 지님으로써 자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점 발견을 잘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45]. McMillen와 Fisher(1998)[46]에 의하면,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점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이점 발견 측정법들은 실제 이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 모두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및 어려움 동반 위험요인 등 부정적 사건에 노출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상담 장면에서 이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통해 해당 경험에 대한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긍정적 양육행동하고, 어려움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은 적응유연성이 높아짐으로써 긍정적 양육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과 부성숙(2014)[47]에 의하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의 행복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연령이 어리고 비결혼자로서의 수치심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의지적 양육자로서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보건교육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건강한 가정을 촉진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사회적 편견은 긍정

적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과도한 양육스트레스가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11][12]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사회적 편견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즉,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편견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양육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관심을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 양육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명 수호 차원에서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미혼모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양육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식은 특정집단의 기회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물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이나 주관적 측면에서의 박탈감과 차별 감정을 유발한다[48]. 따라서 사회적 편견 정도에 따라 적응유연성으로 인한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다르며, 사회적 편견은 낮은 적응유연성으로 인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를 비난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양육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양육 청소년 미혼모를 주요 위기 대상으로 삼아 상담, 보호, 긴급구조와 같은 통합적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효율적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자녀관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양육행동 강

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접근의 중요성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기보고식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므로 양육 청소년 미혼모들의 특성상 그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행동관찰, 사례연구, 심층면접 등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 병행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들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박영혜, “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지원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493-502, 2016.
- [2] 정은희, *우리나라 미혼모 문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가정, 학교, 사회, 복지서비스적 차원*,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 보건복지가족부, *인구조사자료*, 2017.
- [4]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2017.
- [5] 김민정, *양육미혼모의 사회복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6] 최경화, *양육 미혼모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7] 최양자, 김귀분, “미혼모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0권, 제4호, pp.331-341, 2004.
- [8] 토마토뉴스, *학교밖 미혼모*, 2016년 11월 7일.
- [9] 이민정, “미혼모의 자녀양육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2호, pp.79-108, 2009.
- [10] 최미영, *미취학아동을 둔 한부모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1] 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06.
- [12] 국소영, *한부모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3] A. S. Masten, “Resilie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Successful adaptation despite risk and adversity,” In M. Wang & E. Gordon(Eds.), *Risk and resilience in inner 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 Hillsdale, NJ: Erlbaum, pp.3-25, 1994.
- [14] D. W. Bartlett, “On resilience: Questions of validity,” In M. C. Wang & E. W. Gordon(Eds.),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 city America: Challenge and prospects*, Hillsdale. NJ: Erlbaum, pp.97-108, 1994.
- [15] N. Garnezy,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 Supplement, Oxford: Pergamon, No.4, pp.213-233, 1993.
- [16] 김혜선, 김은하,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pp.373-393, 2006.
- [17] 이해진, “양육미혼모의 삶의 조건과 모성권,” 젠더연구, 제19권, pp.59-79, 2014.
- [18] 최병욱, “인문치료를 통한 양육 미혼모의 삶의 긍정성 향상,”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5권, pp.365-402, 2013.
- [19] J. J. McWirter, B. T. McWirter, E. H. McWirter, and R. J. McWirter,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U Brooks, Cole-Thomson Learning, 2004.
- [20] S. S. Luthar,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Vol.60, pp.600-616, 1991.
- [21]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22] 강석기,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가족관*

- 런 변수와 매개변수의 구조적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23] 박주란,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역경지각 및 보호요인의 관계*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4] 이혜리, 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161-206, 2005.
- [25] 송희영, 임지영, 남경아, “일반청소년의 위한 적응유연성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31-39, 2006.
- [26]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 pp105-131, 2009.
- [27] 김요셉,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이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8] 조규필,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쉼터의 개입기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9] 최태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0] 조은영,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스티그마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31] 최선화, *오영란, 여성복지론*, 공동체, 2009.
- [32] 임혜영, *미혼모의 양육과 입양결정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33] 김현진, *미혼모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4] 김혜영, 안상수, “미혼모·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의원 김금래, pp.3-39, 2009.
- [35] 문은식,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8권, 제4호, pp.145-154, 2007.
- [36] 이진희, *유아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또래유능성,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7] M. Main, N. Kaplan, and J. Cassidy,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1995.
- [38] C. Jew, K. Green, and J. Krog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sil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32, No.2, pp.75-89, 1999.
- [39] 김정득, *문제성 음주부모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0] 이선희,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1] 나지혜,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2] 장현주, *미혼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만족도, 사회적 지지, 사회적 편견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3]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초, 중,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탐색: 유능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학교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pp.1199-1217, 2005.
- [44] 유다미,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45] 김미자, *학교 적응유연성에 따른 전문계 여고생의 삶의 태도* 빈곤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